

보도시점 2025. 11. 5.(수) 11:00
11. 6.(목) 조간

배포 2025. 11. 5.(수) 09:00

농식품부, K-푸드+ 수출상담회로 시장 다변화 및 글로벌 도약 발판 마련!

- 2025 하반기 ‘K-푸드+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10.29~31)
- 42개국 316개사 참가, 총 1,649건 110백만불 규모의 상담 진행으로 현장 계약(MOU) 35건 약 12백만불(전년 9백만불 대비 30% 증가) 달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29일(수)~31일(금)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푸드워크 코리아 2025’와 연계하여 ‘K-푸드+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를 개최하였다.

* K-푸드+ : 농식품(K-푸드, 신선농산물·가공식품)과 농산업 제품(+,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농식품과 농산업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해 전 세계 42개국 316개사(해외 바이어 89개사, 국내 수출기업 227개사)가 한자리에 모여 총 1,649건 110백만불 규모의 1:1 수출 상담을 실시했고, 이 중 35건 약 12백만불 규모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어 전년도 9백만불 대비 약 30% 증가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농식품 분야는 떡볶이, 만두, 막걸리, 포도, 인삼 등 28건 8백만불, 외식 분야는 종합 분식, 돈까스 등 3건 1백만불, 농산업 분야는 수직농장 솔루션 등 4건 3백만불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상담회에 농식품 수출기업들은 최근 K-콘텐츠를 통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 냉동 김밥부터 저당 치킨 소스 등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을 선보였고, 외식 분야는 우리나라 맛집 가이드인 ‘블루리본 서베이’에 등재된 갈비, 국내외 7백여개 매장을 보유한 치킨 전문점까지 경쟁력 높은 K-외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참여하여 해외 바이어의 눈길을 끌었다.

행사에 참여한 배, 포도, 버섯 등 신선 농산물 수출업체는 “지난 8월 신시장 개척 온라인 상담회를 통해 첫 인연을 맺은 멕시코 바이어와 이번에 백만불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다.”며 “정부가 수출업체와 한 팀이 되어 K-푸드 미개척 시장을 함께 발굴하고 수출을 지원해준 덕분에”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인도네시아의 대형 유통매장 바이어는 “할랄식품 소비가 많은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 라면, 떡볶이 등 K-푸드의 인기가 높다”며, “이번 상담회를 통해 볶음면, 곤약젤리, 과채주스 등 다채로운 K-할랄식품을 발굴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미국의 월마트, 슛라이트 등에 납품하고 있는 바이어는 “지난해 한국산 수삼(인삼) 검역 타결로 인삼 제품을 찾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 상담회를 통해 GAP인증을 보유한 고품질 수삼 수출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며 “향후 FDA 사전등록 등 수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K-푸드는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문화와 기술이 결합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수출상담회를 통해 수출기업들이 시장을 다변화하고 K-푸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2025년 하반기 K-푸드+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행사 사진

담당 부서	식품산업정책관실 농식품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강효주 (044-201-2171)
		담당자	사무관	김남주 (044-201-2174)
	농식품혁신정책관실 농산업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서정호 (044-201-2471)
		담당자	사무관	한상훈 (044-201-2472)